

추억의 합격기

[1988년도 제32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방황, 그리고 끝



채희봉

『학력사항』

- 용산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산업정책 비서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실장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실장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추진단 단장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국 국장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과장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과장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과장
-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 과장
- 1988년도 제32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I. 첫머리에

처음 『考試界』로부터 합격기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과연 내 자신이 합격기를 쓸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상당히 망설였으나 크고 작은 시행착오로 얼룩진 저의 수험생활이 지금도 不退轉의 집념으로 시험공부에 전념하고 계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될까 하여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이 서투른 작문이 수험생 여러분의 준비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면서 펜을 들었습니다.

II. 高試에의 도전과 실패

학력고사를 끝낸 후 장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없이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다행히 사회과학의 꽃이라는 경제학의 이론적 엄밀성과 학문적 심오함은 저로 하여금 경제학공부와 응용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을 갖게 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행정고시에 재경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전공하는 경제학지식과 가치관을 보다 뜻있는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高等考試에 대한 막연한 동

경과 매력을 지니게 되었다.

어느날 상대 고시반인 經賢齋 입실시험을 시험삼아 한번 보았는데 운 좋게도 합격을 하게 되었고, 뜻밖에 얻은 행운인지라 주저없이 입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배들의 엄청난 열기와 독서량이기가 질려 수험준비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써클생활과 전공에 필수적이라는 數學공부에 전념하였다.

이리하여 2학년 때에는 미시경제학과 통계학을 수업진도에 맞춰 공부해 나갔고 거시경제학과 국제무역론을 앞당겨 수강하였다.

1986년 1월부터는 6월 29일 시행될 行政高試 1차시험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1월부터 2월까지의 영어에 치중하면서 Academy Toefl과 Vocabulary 22,000을 보았고, 미시경제학(박진근 저), 거시경제학(정운찬 저), 헌법(권영성 저)을 한번씩 읽었다.

3월 한달 동안 민법총칙(곽윤직 저), 한국사 신문(이기백 저)을 각각 1회독씩 한 후 4월부터는 김철수 교수님의 헌법문제집, 이근식·송희성 교수님의 민총문제집, 조좌호 교수님의 국사문제집, 전기호 교수님의 경제학문제집으로 실전에 대비하면서 미비한 점을 체크해 나갔다.

막바지에는 헌법, 민총, 국사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했다.

6월 29일(1986년) 1차시험일에는 헌법과 민법, 국사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치렀으나 경제학의 경우 국제경제, 재정, 경기변동 등에 관한 문제에 다소 애를 먹었고, 영어도 쉬운듯 하면서도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보였다.

제30회 1차시험 발표일에 떨리는 마음으로 『考試界』에 전화를 걸어보니 합격이 되었다

고 하였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후에 박동서 교수님의 行政學을 한번 읽어보고, 김도창 교수님의 行政法(上)을 약 400여 페이지가량 읽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갔다.

제30회 行政高試 2차시험에서는 이야기로만 듣던 두루마리를 구경하고 시험장분위기를 익히는데 만족해야만 했다. 1차시험에 처음 합격하신 분들께서는 그해 2차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2차시험을 위해 좋지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2차시험 후부터 발표일까지는 비전공 과목인 行政法과 行政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두어야 한다는 선배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손이 잡히지 않아 허송세월을 하였는데, 이 기간도 역시 유경험자들의 조언에도 취약과목과 비전공과목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제30회 行政高試 2차시험 합격자 발표후에는 行政學과 行政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여 다시 박동서 교수님의 韓國行政論과 김도창 교수님의 行政法(上)을 1회독하였다. 또한 統計學의 現代統計學과 윤기중 교수님의 數理統計學을 보면서 정리해 두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교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김동진 교수의 재정학, 박진근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정운찬 교수님의 거시경제학, 이형순 교수님의 신거시경제학, 박진근 교수님의 국제경제학, 조순 교수님의 화폐금융론을 각각 1회독하였다. 독서속도가 느린 까닭에 책을 여러번 걸쳐서 보기보다는 한번 읽더라도 꼼꼼히 읽으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4월부터 行試 2차시험 60일전까지는 박운훈 교수님의 行政法(下)과 신이론 및 새로운 학설에 대비하였고, 행정학은 백운기 교

수님의 行政學에서 총론부분과 조직 및 조직 관리부분을 참고하고, 김규정 교수님의 문제집으로 실전을 대비하였다. 제31회 行政高試 2차시험일.

행정법에서의 「경찰책임의 원칙」과 「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의 차이」는 예상했던 문제였고, 경제학에서의 「독점의 폐해와 그 대책」과 「경쟁적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 행정학에서의 「공무원의 능력발전방안」, 재정학의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 역시 준비해 두었던 문제여서 비교적 수월하게 썼다. 하지만 행정학에서 작은 문제에 대해 먼저 답안을 작성하였던 관계로 큰 문제인 「우리나라 사회변동이 행정이념과 구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라」는 시간의 부족과 답안작성기술의 미숙으로 인해 사회변동의 개념과 구조에의 영향에 대해서는 대충 쓰는 우를 범하였다. 또한 통계학의 큰 문제인 「소비수준이 소득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설이 있는데 이를 음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에 대해서는 이를 상관분석에 관한 문제로 단정해 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제31회 行試 2차시험에서 비교적 예상했던 문제가 많이 나와 합격을 기대 했지만, 行試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까닭에(물론 당시까지만 해도 중대한 착각이었는지 몰랐지만)제30회 행시 재경직 1차합격자 68명, 제31회 재경직 최종합격자 정원 40명이라는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낙방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제31회 행정고시의 패인을 분석한 결과 그 패인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첫째, 각 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특수한 전략의 부재(예를 들면 경제학, 재정학, 화폐금융론의 경우 시사성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소홀, 행정법의 경우 목차의 빠짐없는 암기와 답안의 논리적 전개(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 둘째, 체계적인 자료의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고 중구난망식으로 공부하였던 점, 셋째, 그룹스터디를 통한 타 수험생들과의 비교가 없었던 점, 넷째, 답안작성연습이 부족했던 점을 들 수 있다.

III. 재도전

제31회 행시 2차불합격이 가져다 준 충격과 좌절은 꽤 길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여러 친구와 선후배, 친지 등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은 조금 의기소침했던 나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러 일으켜 다시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12월부터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입학시험에 대비하여 Toefl, Vocabulary 22,000등으로 영어를 준비했고, 1월부터 행정학과 경제학을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갔다. 행정학 문제 중에서 정책학에 대한 것이 출제되어 조금 당황했고, 영어는 의외로 모르는 단어가 많이 눈에 보였다.

불안한 마음으로 1월 30일 대학원합격자발표를 보러갔는데 합격자명단중에 내 이름이 눈에 띄었다. 2월 8일자로 군대소집장을 받아 놓고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989년 2월부터는 행정학과 행정법을 단권화작업을 하면서 1회독씩 하고는 재경 2차시험과목인 경제학(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과 재정학, 화폐금융론을 체계로 잡아가면서 읽어나가는 것으로 1차시험에서의 경제학공부를 대신했다.

4월부터는 경제학은 윤일홍 교수님의 문제집을 풀어보았고, 미처 보지 못했던 헌법, 민법총칙, 국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간을 투자했다. 이때 헌법과 국사는 문제집을 바꿔 민경식 교수님의 헌법문제집과 양양환씨의 국사문제집을 공부하였으며, 경제학문제집을 풀면서 2차기본서를 자주 참고해 1, 2차 동시합격에 대비했다.

제32회 1차시험에서는 민법총칙을 시험장에 가서야 경우 2회독을 했을 정도로 시험준비기간이 짧았던 까닭에 기억이 잘 되살아나지 않아 고전했다. 특히 민법총칙에서는 각론에 관한 문제가 많아 애를 먹었고, 국사 역시 아리송한 문제가 많았다. 다행히 경제학은 조금 쉬었다.

1차시험 후에는 1차시험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동시합격을 목표로 2차시험에 대한 준비에 전력을 다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동안 보지 못했던 행정학과 행정법을 종래의 기본서와 정리해 두었던 과일을 중심으로 빨리 읽어나갔고, 예상문제와 신이론, 시사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국민윤리도 형설출판사의 국민윤리와 고시잡지의 모범답안을 암기해 나갔다.

한편 경제학, 재정학, 화폐금융론은 1차준비관계로 소홀히 했던 시사성 있는 문제에 유의하면서 기본서를 차례로 정리에 나갔고, 통계학은 시험에 임박하여 꼼꼼히 암기함으로써 답안작성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다시 나에게 부여된 재도전의 기회!

제32회 行試 2차시험이 드디어 실시되었다.

첫날 국민윤리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탈 이데올로기」와 「노장사상의 현대적 의의」가 나와 당황했고, 행정법의 큰 문제인 「도시계획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에 관하여 논하라」는 시험 며칠전에 본 기억이 있어 무난히 썼으나 작은 문제인 사정재결에 대해서는 본지가 조금 오래되어 조금 고전했다.

둘째날, 행정학에서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탈관료화전략」이라는 문제의 경우 구조적인 면에 치우치기 보다는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려고 노력했고, 작은 문제인 「주민참여의 효용과 한계」는 백완기 교수님의 책에서, 그리고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제도」는 4인 공저 문제집에서 보아 두었던 문제라 큰 어려움 없이 썼다.

그러나 경제학에서의 큰 문제인 「시장경제에 있어서 소득분배의 결정요인과 소득재분배정책을 논하라」는 소득분배의 결정요인을 어떠한 각도에서 설명할 것인가 고심했고 농산물 수확과 농산물가격 및 농가소득과의 관계에서는 이론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대신에 상식적인 서술을 하는데 그쳤다.

사흘째, 재정학의 큰 문제인 「복지정책의 효과와 한계」에서는 시사성 있는 문제로 유의했었던 문제여서 효과에 대해서는 자원분배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유효수요효과,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복지재원의 조달방법과 관련시켜 서술했고, 한계에 대해서는 노동공급과 저축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작은 문제인 「전위효과가설」은 황하현 교수님의 책에서, 「공공재 과다공급설」은 김동건 교수님의 책에서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 별 어려움 없이 답안을 작성했다.

또한 통계학시험에서 50점짜리 「檢定」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은 했었으나 검정 특유의 답안작성의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애를 먹었고, 「X관리도」는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날인 화폐금융론시험에서 「선별적 금융정책의 의의와 한계」가 출제되었는데 시험직전에 본 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 선별적 금융정책의 종류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는 바람에 그 장단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 못했고, 작은 문제인 「대부자금설과 유동성선호설의 비교」에서는 고전적 대부자금설과 현대적 대부자금설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IV. 수험생활을 마감하며

저의 무수한 시행착오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고시 재경직렬의 준비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저의 단견이 저보다 탁월하신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혼돈을 불러 일으키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1. 먼저 행정고시 재경직의 7가지 시험과목별로 각각 특색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행정법의 경우에는 기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각 소항목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나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행정학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대부분 포괄적인 문제가 나오므로 우리나라의 행정을 체제로 보고, 체제의 각 요소별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작은 문제의 경우 기본서에 충실하되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학과 재정학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시사성 있는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또한 시사성 있는 문제라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못지않게 그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도 기본서를 참고로 하여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통계학의 경우에는 정의와 기본적인 가정의 암기와 중요한 정리에 대한 증명, 간단한 계산문제 등에 대해서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각 과목별로 단권화와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시험직전에 최종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일목요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봅니다. 필자의 경우 제31회 시험 준비과정에서 행정학 공부를 체계적인 정리없이 하였던 까닭에 매우 고생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자료를 기본서에 끼워 넣거나 따로 보충 파일을 만들어 고시잡지의 모범답안과 논문, 타교과서에서 잘 되어 있는 부분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가급적이면 혼자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자기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 답안작성연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안작성연습은 자신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시간배분을 능숙히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됨에 따라 균형있는 답안의 작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예상문제선정을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횡수별, 교과서목차별로 정리하여 그 동안 강조되었던 부분,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 등에 평소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나, 예상문제 위주의 공부는 매우 위험하므로 시험직전에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V. 마지막에

고시공부를 하면서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고등고시가 0(failure)과 1(success)이외에는

어떠한 값도 가지지 않는 Bernoulli 확률변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적은 확률을 가지는 1의 값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과 성실성도 중요하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위의 도움과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운이라는 요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菲才한 제가 1의 값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안 어리석은 저를 헌신적으로 키워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제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적 터전을 마련해 주신 연세대학교 여러 교수님들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준 연세대학교의 經賢齋의 선후배와 대학동기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